

연구논문

농촌 기혼남녀의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에 따른 결혼만족도

A Study on Marital Conflict, Conflict-Coping Type and Marital Satisfaction of the Rural Married Couple

농촌생활연구소 생활지도관 조 현 숙
박사후 연구생 임 선 영
농업연구관 김 경 미
농업연구사 최 윤 지

Rural Living Science Institute
Hyun-Sook Cho
Sun-Young Im
Kyung-Mi Gim
Yoon-Ji Choi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and conflict-coping type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rural married person.

Data were obtained from 476 who married living in rural area. The major finding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rital conflict were shown to be low, while in terms of degree of seriousness, environmental, interpersonal and intrapersonal are in descending order. Also, husband perceived marital conflict higher than wife. On the whole husband and wife used more reasoning coping type. And marital satisfaction was higher in husband's side. Second, living standard and conflict-coping types influence on marital satisfaction of rural men and women who married. That is, the

higher husband perceived living standard and the less they used verbal aggression behavior and physical violence behavior and then the higher they perceived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higher wives perceived living standard, they used more reasoning behavior and then the higher they perceived marital satisfaction.

◆ Key words : marriage satisfaction, marital conflict, conflict-coping, rural married-person

I. 서론

현대의 부부관계는 가족내 인간관계의 중심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자라온 환경과 경험이 서로 다른 부부의 결합이므로 결혼생활에 어느 정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더욱이 여성들의 교육수준의 증가와 더불어 경제적 활동의 증가하면서 평등한 남녀관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으나 가족내의 부부관계는 여전히 불평등한 경향을 띠고 있어 부부간의 갈등이 높을 수 있다.

실제 농촌사회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가족내 경제적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가족관계에서의 변화를 가져와 남편과의 동등한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이정화·최은숙·한경혜, 1995)고 지적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농촌부부들이 여전히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수행 및 권력관계를 크게 변화하지 않아 전통적인 부부의 위계적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김영희·한경혜, 1996), 가부장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편과의 가사분담, 의사결정에서의 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이정화·최은숙·한경혜, 1995 ; 김영희·한경혜, 1996, 조현숙, 1999, 최규련, 2000, 충남대 여성정책연구소, 2000)으로 지적하고 있어 전통적인 부부의 불평등한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부부의 이러한 불균형적인 관계는 부부간의 갈등 및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한편 갈등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갈등 자체가 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갈등의 대처행동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즉 Pearlin 과Schooler(1978)는 결혼에 따른 긴장을 경감시키는 데에는 인성특성이나 사회적 지원요

소들의 역할로 문제를 경감시키는 것보다 대처반응이 더 강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Paolucci, Hall 과 Axinn(1977)는 부부는 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취하게 되면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긴밀해지면서 보다 안정된 가정을 이룩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부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누적되어가 바람직한 갈등대처행동을 찾아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 별거나 이혼과 같은 가족해체 상태에 이르게 된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80년 5.9%에서 1999년에는 37.5%로 5배 정도의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0). 이는 점차 부부갈등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러한 부부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가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갈등을 잘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부부갈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부갈등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부부갈등을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단순히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만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결혼만족도와 관련시킨 연구는 충분치 않으며(김영희·한경혜, 1996, 조유리·김경신, 2000), 특히 농촌부부들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농촌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부족은 농촌부부의 특성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현대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특성을 일반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즉 도시부부를 대상으로 한 부부갈등과 관련 변인의 연구들이 부부간의 관계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행복한 결혼과 불행한 결혼의 가져오는 중요한 변수로 지적하고 있으나, 농

촌사회의 경우 도농간의 소득격차, 생산연령층 인구의 도시 유출 및 농촌의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여성화, 자녀교육의 문제에 따른 부부간의 갈등을 지적(김영희·한정혜, 1996)한다. 또한 농촌사회에 여전히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는 가부장적 가치관과 농촌여성의 생산 및 가사의 이중역할에서 오는 부담의 갈등정도는 도시부부와는 다른 갈등대처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농촌부부는 도시부부와는 구별된 학문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농촌부부의 갈등적 상황과 갈등대처행동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농촌가족의 안정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며 나아가 현대 한국 부부관계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에 거주하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표집하여 부부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개인적 특성 및 갈등 대처방식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농촌부부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인 부부갈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갈등에 대한 대처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촌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도시부부와는 다른 농촌부부의 결혼특성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도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농촌가족의 부부갈등

현대사회의 부부갈등의 제 요인에 대해 학자들마다 접근방식이 다양하다. 이는 부부간의 갈등의 원인이 그만큼 다양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농촌가족에 초점을 둔 부부갈등 연구들은 대체로 농촌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불일치와 역할관계의 불일치에서 오는 부부갈등이 잠재해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농촌사회 역시 도시가족의 부부들처럼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원들간에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의사결정에서도 부인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농촌가족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부부간의 대등한 관계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조옥라, 1990, 한국여성개발원, 1993). 실제 농촌여성이 농업, 농외소득활동 등 경제활동의 기여가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가정내에서의 의사결정권 향상 등에 일부 영향을 주지만 역할증대에 비례하는 지위향상이 일어나지 못하며, 여전히 불평등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한다(심미옥, 1997). 또한 도시지역의 경우 가사노동의 상당 부분이 사회화되어 있어 노동력부담이 적지만, 농촌은 가족내에서 해결해야 하고, 가부장제적 성격이 짙어 여성들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농촌생활연구소, 2000) 이로 인한 부부간의 잠재된 긴장과 갈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우리나라 농촌가족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열악한 주변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부를 둘러싼 주변환경에 기인한 문제들이 부부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즉 농가부채의 문제(설동훈, 1993), 남편보다 부인이 도시로 이주하기 원하는 것이 높고(한국여성개발원, 1993), 자녀교육문제(김주숙, 1988)로 인한 부부간의 갈등을 높게지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 주부를 대상으로 연구에서도(김영희외, 1996)는 부부갈등의 요인을 성격, 음주 등 개인적 영역, 의사소통, 여가활동 등의 부부간의 영역, 부모역할, 경제적 어려움, 시가문제, 농촌 거주 문제 등의 주변환경 영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영역별로 볼 때 주변환경 영역에서 갈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개인적 영역, 부부관계 영역, 주변환경 영역으로 구분하여 갈등정도를 파악하고 남편과 부인의 갈등정도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갈등대처행동

갈등대처행동이란 문제나 갈등에 직면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는 것으로, 부부간의 갈등대처행동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Pearlin 과Schooler(1978)은 문제나 갈등에 직면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는 것으로 대처를 고통의 점차적인 감소, 문제해결, 현실감증, 복귀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Chodoff(1964)는 심리적 안정성에 대한 중요한 위협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모든 방법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다.

갈등대처행동 유형에 대한 분류를 살펴보면, Pearlin 과 Schooler(1978)는 충고 구하기, 감정 표출, 협상, 체념, 선택적 무시를 제시하였다. Rice(1979)는 갈등대처행동을 완전한 이해와 갈등 해결에 도달하는 건설적인 싸움, 자신을 자극하는 상황이나 문제 등을 피하여 갈등을 방지하는 회피, 문제 자체보다 상대의 자아를 공격하는 파괴적인 싸움, 위협과 복종, 역할 유도·역할 수정·역할 역전, 협상과 그에 따른 계약 등으로 분류했다. Straus(1979)는 갈등대처행동으로 문제에 대해 의논하거나 해결할 정보 등을 이용하는 이성적 방법(reasoning)과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 육체적 힘이나 완력을 이용하는 폭력(violence)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국내연구로는 이영숙(1990)의 경우 건설적, 수동적 회피, 신체적 폭력으로 분류하였고, 최혜경·노치영(1994)은 문제 상황을 변화시키며 관계 성장과 유지를 추구하는 적극적·부정적 문제 해결 행동 유형, 문제 변화에 관계 목표보다 개인을 우선하는 적극적·부정적 문제 해결 행동 유형, 문제 자체를 부인하거나 관계 자체를 피하는 소극적·부정적 문제 해결 행동 유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외에 송말희(1990)는 합리화와 부정, 회피와 억압, 외부의 도움 요청, 적극적 행동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대처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갈등에 따른 어떤 불가피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둘째, 가족구성원 모두가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자원과 대처행동을 이용함으로써 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갈등은 모든 결혼생활에 정상적인 부분으로 존재하며, 갈등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에 대한 대처행동이 건설적이나, 폭력과 같은 파괴적인 행동이냐에 따라서 부

부가 해체되거나, 또는 회복되고 재조직되어 가족의 평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갈등대처행동을 Straus의 CTS(Conflict Tactics Scales)를 사용하여 갈등대처행동의 유형을 이 문제에 대한 논의 또는 해결할 정보나 다른 중재자를 찾는 이성적 행동(Reasoning), 상대에게 상징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협박하는 언쟁행동(Verbal aggression), 육체적인 힘이나 완력 등을 사용하는 폭력행동(Violence)으로 구분하여 농촌기혼남녀의 갈등대처행동 패턴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결혼만족도

결혼은 하나의 상태가 아닌 과정으로 결혼만족도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학자들에 따라 결혼만족도의 정의는 각각 상이하다. 학자들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개념 정의는 크게 주관적, 객관적인 두 가지 차원으로 요약되는데,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정승혜(1988)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결혼만족도란, 태도적 혹은 주관적 측정이라기 보다는 결혼에 대한 기대와 실제로 받는 보상과의 일차 정도에 대한 측정 혹은 개인의 기대와 결혼 만족도 사이의 비교이며 둘째, 개인이 결혼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행복 등과 같은 주관적 감정이라고 하였다. 김명자(1985)는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의 실제와 기대 간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적 관점에 따른 주관적 만족정도'라 하였으며, 유영주(1979)는 '결혼생활 전반에 있어 부부의 행복과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라고 정의하였다(조유리의, 2000, p5에서 재인용).

한편 부부갈등과 갈등대처행동 및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보면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갈등자체 보다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것이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한다. 따라서 보다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갈등대처행동이 결혼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Straus는(1980) 갈등대처행동으로 CTS(Conflict Tactic Scales)를 사용한 연구에서 조사대상 부부의 16%가 갈등대처행

동으로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효정(1995)은 3가지의 갈등해소방법으로 건설형, 파괴형, 회피형으로 나누어 측정한 결과 남편이 파괴형이고 부인이 회피형을 사용할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부간 언쟁이나 폭력행동이 낮았으며,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과 결혼안정성은 부적인 관계(김정옥, 1993)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문제해결에서 파괴적 대처행동을 취하는 부부가 부부문제 해결 효율성이 낮고 결혼에 대해서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최혜경·노치영, 1994) 이 연구결과들은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부부갈등 그 자체보다는 갈등대처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농촌부부들의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이정화·최은숙·한경혜, 1995), 조사대상자의 12.1%가 이성적 행동, 언어 심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집단은 57.9%, 폭력행동은 약 3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부부들의 대다수가 갈등 상황에 대해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폭력적 행동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

음을 예측케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를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의 행복과 만족도에 대한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로 정의하여 결혼만족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결혼만족도에 개인적 특성,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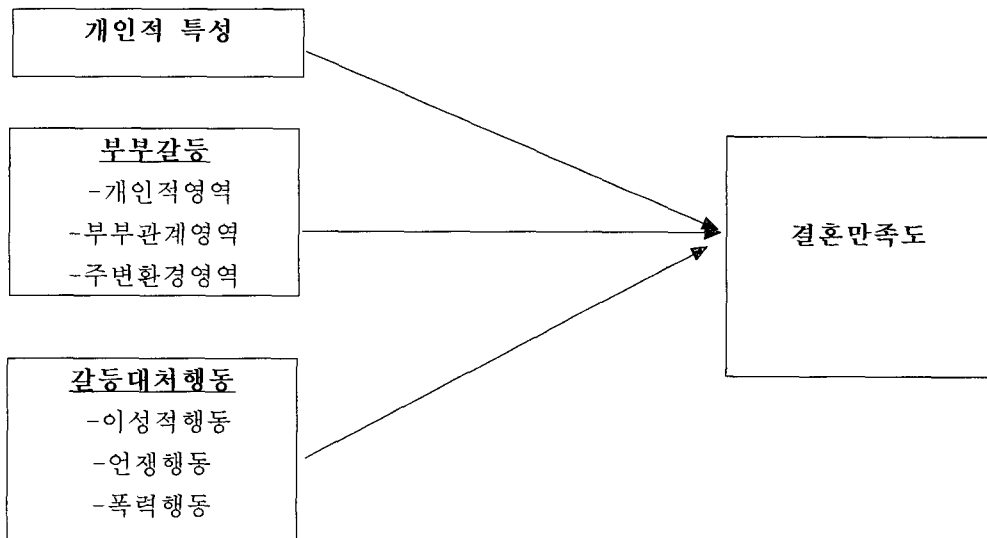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농촌 기혼남녀의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농촌기혼남녀의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부부갈등, 갈등대처행동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러한 내용은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으로 제시된다.



〈그림 1〉 연구모형

2. 척도의 구성

조사는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부부갈등

부부갈등을 조사하기 위해 Olson 등(1982)의 Enrich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를 정현숙(1994)이 번안, 수정한 척도와 김영희·한경혜(1996)의 도구를 기초로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성격', '음주 및 술주정'의 개인영역 4문항($\alpha = .62$), '의사소통', '여가활동' 등의 부부관계영역 6문항($\alpha = .58$), '부모역할', '경제적 어려움', '농촌거주 문제' 등의 주변환경영역 3문항($\alpha = .71$) 등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 점수가 높은 것이다.

2) 갈등대처행동

갈등대처행동은 Straus(1979)의 갈등척략척도(Conflict Tactics Scale, CTS), 김정옥(1985), 김은정(1992)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이성적 행동, 언쟁행동, 폭력행동의 3개 하위척도,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서 이성적 행동이란 이성적인 논의, 논리적인 사고 등 지적인 방법에 의한 해결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언쟁행동이란 언행으로 혐오감, 적대감, 모욕감, 협박 등을 표현하여 상징적으로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처행동이다. 폭력행동은 배우자에게 폭력을 사용하여 신체적인 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 문항에서 제시한 '의논 및 토의', '홍분된 말', '물건 부수기', '발로 차거나 때리기' 등 총 13문항을 얼마나 자주 행했는지 대답하게 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행동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이성적 행동 $\alpha = .62$, 언쟁행동 $\alpha = .73$, 폭력행동 $\alpha = .62$ 로 나타났다.

3)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과 만족도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로 부부갈등 문항과 중복되지 않기 위하여 단일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당신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로 질문한 도구는 '매우 불만'(1점)에서 '매우 만족'(5점)의 5점 리커트 척도이다.

3.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기혼남녀로 하였다. 농촌을 행정단위로 읍·면 지역으로 규정하였으나 최근 시·군이 통합됨에 따라 분류기준이 모호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읍·면 지역은 물론이고 시 지역에서도 농업종사자가 많은 지역을 농촌으로 포함시켰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연령은 남편 40-49세가 59%, 아내는 20-39세가 49.9%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남편이 43.9세, 아내는 41.4세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남편의 경우 73.2%, 아내는 60.3%로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고졸이상의 학력수준을 나타냈다.

직업유형은 농업이 남편의 경우 55.5%, 여성의 경우 50.2%로 가장 많았고, 결혼유형은 '증매혼'이 남편의 41.4%, 아내의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인식한 생활수준에 대해 남편의 60.6%, 아내의 52.3%가 '보통이다'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시부모와의 동거여부는 별거가 동거보다 높아 조사대상 남성의 63.1%와, 여성의 62.2%가 별거로 나타나 농촌지역에서도 핵가족이 보편적 가족구조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 남성 47.6%, 여성 47.9%가 막내자녀의 연령이 14세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4. 조사과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전국의 8개도 25개시·군에서 농촌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있는 기혼남녀 47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분류	남편(N=235)		부인(N=241)	
		N	%	N	%
연령	30대	54	23.0	113	46.9
	40대	137	57.0	90	37.3
	50대	47	20.0	38	15.8
	평균	43.9세		41.4세	
교육수준	초등졸이하	11	4.7	37	15.5
	중졸	52	22.1	58	24.1
	고졸	98	41.7	107	44.8
	대졸이상	74	31.5	37	15.1
결혼유형	연애	72	30.5	79	32.8
	질충	67	28.4	70	29.0
	중매	97	41.1	92	38.2
생활수준	못사는편	58	24.6	62	25.7
	보통이다	143	60.6	126	52.3
	잘사는편	35	14.8	53	22.0
직업유형	농업	131	55.5	121	50.2
	생산·서비스	39	16.5	33	13.7
	사무·전문직	64	27.1	34	14.1
	기타	2	.8	53	22.0
시부모동거여부	동거	87	36.8	91	37.8
	별거	149	63.1	150	62.2
막내자녀연령	0-7세	50	28.2	48	22.5
	8-13세	58	24.3	63	29.6
	14세이후	98	47.6	102	47.9

료수집 절차는 조사도구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와 자료수집을 위한 본조사, 미비점 보완을 위한 보완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는 지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전국 8개도를 지역과 인원수를 정하여 500부의 질문지를 배분하였다. 질문지 배부와 회수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았고 일부 지역은 본 연구자 및 연구보조가 직접 담당하였다. 본 조사는 2000년 6월 29일부터 8월3일까지, 보완조사는 10월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하였다. 전체 500부를 배부하여 이중 기재가 불성실하거나, 회수되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 총 476부가 최종분석에 이용되었다. 표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WI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Pearson의 상관관계,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의 전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의 일반적 경향과 남녀차이는 〈표 2〉와 같다. 먼저 부부갈등의 전체 평균은 3점 만점의 중간치 이하인 1.56점으로 나타나 부부갈등을 그리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부부갈등 인지수준은 1.48점, 아내 1.63점으로 남편보다 부인이 부부갈등을 유의하게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별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주변환경영역이 1.75점으로 다른 영역보다 가장 높은 갈등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개인영역 1.50점, 부부관계영역

〈표 2〉 부부갈등, 갈등대처행동, 결혼만족도의 차이

	전체	남편(부인	t값
	M(SD)	M(SD)	M(SD)	
부부갈등				
개인적영역	1.50(.51)	1.44(.45)	1.56(.56)	-2.671**
부부관계영역	1.46(.59)	1.37(.45)	1.54(.63)	-3.409**
주변환경영역	1.75(.71)	1.71(.68)	1.80(.74)	-1.409
전체	1.56(.50)	1.48(.43)	1.63(.54)	-3.222**
갈등대처행동				
이성적행동	2.58(.56)	2.60(.55)	2.57(.58)	.648
언쟁행동	2.09(.58)	2.27(.63)	2.33(.71)	-1.113
폭력행동	1.23(.38)	1.27(.41)	1.28(.40)	-.351
결혼만족도	3.37(.90)	3.60(.91)	3.14(.82)	17.568***

* p<.05 ** p<.01 *** p<.001

1.4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 영역중 주변환경 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주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영희·한경혜, 1996)와 일치한 결과로 농촌부부의 결혼생활 유지에 부모역할이나 시가문제, 농촌거주문제와 같은 주변환경 요인의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각 하위영역별 부부간의 차이를 보면 개인적 영역은 부인이 1.56점, 남편이 1.44점으로 남편보다 부인이 유의하게 갈등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부부영역에서도 부인이 1.54점, 남편이 1.37점으로 남편보다 부인이 유의하게 갈등을 높게 지각하였다. 한편 주변환경영역은 부인이 1.80점, 남편이 1.71점으로 부인이 갈등을 높게 지각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대체로 부인의 갈등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결혼생활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갈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과 일치한다(김혜경, 1986, 송말희, 1990, 조유리·김경신, 2000). 또한 이러한 결과는 농촌부부들이 동일한 결혼생활에 대해 부인의 부정적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부갈등의 대처행동 유형에서는 남편과 부인 모두 갈등대처행동 중 이성적 행동이 2.58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언쟁행동이 2.09점, 폭력행동 1.2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본 조사대상자들은 부부갈등 상황에 보다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 하위영역별로 부부간 차이를 살펴보면, 이성적 행동은 남편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쟁행동과 폭력행동은 아내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송영자의 연구에서도(1986) 이성적 행동, 언쟁행동, 폭력행동의 세 가지 갈등대처행동에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는 평균 5점 만점의 중간 점수보다 높은 3.37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3.60, 아내는 3.14점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아내의 결혼만족도보다 높다는 기존의 연구들(정현숙, 1996, 김은경, 1999, 조유리·김경신, 2000)과 일치하였다.

2. 결혼만족도에 대한 주요 변인의 영향력

농촌 기혼 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앞의 분석결과 특히 유의한 변인들을 이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전 독립변인들간의 상관계

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3>, <표 4>와 같다. 변인간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독립변인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가정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남편의 경우 1.97, 부인의 경우는 1.83으로 나타나 2에 근접하고 있으므로 잔차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촌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들의 영향력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생활수준($\beta = .22$), 폭력행동($\beta = -.19$), 언쟁행동($\beta = -.16$)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변량의 20%를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생활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갈등대처방법으로 언쟁행동과 폭력행동을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

<표 3> 남편의 변인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연령	1.000										
2.생활수준	-.02	1.000									
3.학력	-.41**	-.01	1.000								
4.결혼 유형	-.18**	.06	.17**	1.000							
5.개인영역	.01	-.10	-.10	.03	1.000						
6.부부영역	-.01	-.12*	-.08	-.16**	.56**	1.000					
7.주변영역	-.05	-.18**	-.04	-.07	.45**	.64**	1.000				
8.이성적	-.08	.16**	.05	.05	.06	-.05	.00	-.01			
9.언쟁	-.14**	-.10	.05	.12*	.27**	.19**	.21**	.26**	1.000		
10.폭력	.08	.03	-.20**	-.06	.23**	.34**	.23**	.33**	.34**	1.000	
11.결혼만족	-.05	.25**	-.03	-.03	-.25**	-.23**	-.29**	-.30**	-.32**	-.26**	1.000

* p<.05 ** p<.01

<표 4> 부인의 변인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9.	10.	11.	12.
1.연령	1.000										
2.생활수준	-.13**	1.000									
3.학력	-.44**	.17**	1.000								
4.결혼유형	-.28**	.04	.29*	1.000							
5.개인영역	.12*	-.21**	-.03	.03	1.000						
6.부부영역	.04	-.23**	-.04	-.04	.64**	1.000					
7.주변영역	-.04	-.28**	-.02	0.07	.45**	.57**	1.000				
9.이성적	-.03	.11*	.05	-.02	-.14*	-.17**	-.09	1.000			
10.언쟁	.01	-.21**	-.04	.07	.32**	.40**	.33**	-.12*	1.000		
11.폭력	.15	-.16**	-.14**	-.04	.51**	.64**	.35**	.01	.41**	1.000	
12.결혼만족	-.05	.36**	-.00	.01	-.38**	-.39**	-.26**	.20**	-.38**	-.29**	1.000

* p<.05 ** p<.01

〈표 5〉 개인적 특성,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변인	남편		부인	
	B	β	B	β
학력 ¹⁾	-.10	-.10	-.02	-.08
생활수준 ²⁾	.32	.22**	.29	.25***
연령	-.02	-.07	-.02	-.02
결혼유형 ³⁾	-.02	-.04	.02	.04
<u>부부갈등</u>				
개인영역	-.02	-.05	-.22	-.15
부부관계영역	.02	.02	-.24	-.18
주변환경영역	-.27	-.18	.02	.02
<u>갈등대처행동</u>				
이성적행동	.02	.05	.18	.13*
언쟁행동	-.28	-.16*	-.28	-.21**
폭력적행동	-.40	-.19*	.10	.05
F	6.026***		9.224***	
R2	.20		.27	

* p<.05 ** p<.01

- 1) 대졸이상을 1, 고졸이하를 0으로 가변수 처리
- 2) 경제수준 보통이상 1, 하 0으로 가변수 처리
- 3) 연애혼·절충혼1, 중매혼 0으로 가변수 처리

펴보면, 생활수준($\beta = .25$), 언쟁행동($\beta = -.21$), 이성적 행동($\beta = .13$)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인들이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변량의 27% 설명해 주고 있다. 즉, 생활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갈등대처시 이성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고 언쟁행동을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보면 농촌부부들의 성공적이고 만족스런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된 생활수준의 유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부부의 안정된 생활 기반의 확보는 성공적인 결혼생활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 사회 안정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농촌 경제가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부부갈등은 결혼만족도에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갈등인지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만족도에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

다. 또한 갈등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것은 원만한 결혼생활과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갈등을 잘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급변하는 농촌가족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공적이고 만족스런 결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은 농촌을 연구하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농촌가족생활 교육 실무자 및 가족상담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부갈등, 갈등대처행동 및 결혼만족도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개인적 특성과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농촌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부부갈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남편보다 부인이 부부갈등을 유의하게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에 거주하는 부부들의 결혼생활 전반에 걸쳐 부인이 더 많은 갈등과 긴장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도시부부들의 부부관계에서 갈등의 정도는 부부간의 관계적 특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정현숙, 1996),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 영역중 부모역할 문제, 시가문제, 농촌거주문제를 포함한 주변환경영역 갈등이 다른 영역보다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김영희·한경혜, 1996). 이러한 결과는 농촌부부갈등의 연구는 도시부부와 다르게 접근해야 함을 입증한 결과이며 도시부부와 농촌부부의 비교 연구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특히 농촌부부의 만족스런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촌 주변환경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갈등의 대처행동 유형에서는 남편과 부인 모두 갈등대처행동 중 이성적 행동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른 대처행동유형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이성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 것은 조사대상자들이 부부갈등 상황에 보다 이성적인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 결과일 수 있으나 조사대상자의 부부갈등 정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말다툼이나 폭력과 같은 부정적 대처보다는 이성적인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결혼만족도의 경우 대체로 결혼만족도를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부인의 결혼만족도보다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농촌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남편의 경우 생활수준, 폭력행동, 언쟁행동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생활수준을 낮게 인지할수록 그리고 폭력행동과 언쟁행동을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는 생활수준, 이성적행동, 언쟁행동이 결혼만족도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생활수준을 낮게 인식

할수록 이성적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고 언쟁행동을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한 생활수준이 높고 부부갈등 자체보다는 부부갈등시 갈등대처행동을 말다툼이나 폭력적 행동을 적게 사용하고 이성적 대처를 주로 사용할 때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남편보다 부인이 부부갈등이 높고 결혼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부부가 경험하고 평가하는 결혼관계에 성차가 뚜렷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차는 농촌사회 전반에 걸쳐 여전히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부부관계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농촌부부들의 이러한 결혼인식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성평등적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조사에서 부부갈등보다 부부갈등시 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결혼생활에서 갈등을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닌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갈등을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여 보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농촌부부 부부간의 상호불일치를 완화하고 긍정적 상호작용과 성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부부교육프로그램이 개발·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부부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시부부와는 다른 농촌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농촌부부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이들의 문제해결과 능력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부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이러한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촌 담당 관련 기관과 연구소 및 지역 교육 기관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앞으로 사회변화에 따라 농촌 부부문제는 더욱 증가할 것이므로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부상

담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 농촌 지역에서 부부상담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적·정책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네째, 본 연구에서 농촌기혼남녀가 지각한 생활수준 또한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부부들의 성공적이고 안정된 결혼생활을 위해 생활의 안정이 필수적 요건을 입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각종 영농정책의 개발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은 후속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농촌부부의 결혼만족도의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적용이 요구된다. 즉 결혼관계의 보다 정확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부인을 한쌍으로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질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 정도가 낮은 일반 건강한 부부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농촌부부의 잠재된 갈등 및 갈등대처행동의 특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가 일반 농촌부부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지만 현재 위기와 결등을 겪는 농촌부부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과 대책이 더 필요하다. 이는 이혼이 급격히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들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기 위해 잠재된 갈등이 높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 부부관계의 연구가 상당히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농촌 부부의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부간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해체될 가능성이 있는 농촌부부들에 대한 부부상담 및 치료적 개입과 같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양희(1986). 한국 도시인의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 _____ (1995). 여성지위의 실질적 향상을 저해하는 심리기제: 남녀간 경제적 권리의식 및 커리어 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48, pp 93-118.
- 김영자(1992). 도시 지역주민이 경험한 부부간의 갈등요인·갈등정도·정신건강 상태와의 관계. 고려대 석사논문.
- _____ 김은경(1999). 맞벌이 주말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pp. 25-43.
- 김은정(1992). 결혼초기 주부의 역할갈등 및 갈등해결방법과 결혼만족도. 이대 석사논문.
- 김영희·한경혜(1996). 도시근교 농촌주부의 부부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7(2), pp. 129-138.
- 김정옥(1985). 도시부부의 갈등 해결표출방법에 관한 연구-폭력 행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3(2), pp 91-110.
- _____ (1993). 부부폭력에 대한 가정관리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1(2).
- 김주숙(1988). 농업생산양태와 농촌가족문제, 한신논문집 제 4집, 485-527.
- 김혜경(1987). 결혼초기 부부의 갈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김화자·윤종희(199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55-170.
- 서동인·정현숙(1994).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도시가족의 부부관계.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세미나 발표자료, pp. 2-33.
- 설동훈(1993). 한국농촌의 가족구성고 생활실태, 농촌사회, 한국농촌사회학회지, 157-184.
- 심미옥(1997). 농촌여성의 지위와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송말희(1990). 기혼 남·녀의 부부간 갈등정도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pp. 31-47.
- 송영자(1986). 부부간의 갈등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 이정화·최은숙·한경혜(1995). 도시근교 농촌부부의 갈등표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6(1), pp. 41-54.
- 이영숙(1990). 부부간의 지위부조화과 갈등해결방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10), pp. 49-67.
- 전효정(1995). 한국부부의 갈등해소와 결혼적응도:에착유형, 비교수준의 동기의 영향, 가족학연구회 발표문
- 정승혜(1988). 부부의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정현숙(1996). 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패턴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pp. 51-60.
- 조유리·김경신(2000). 부부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2), pp. 1-21.
- 조현숙(1999).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수원대 석사논문.
- 최규련(1988). 한국도시부부의 결혼만족도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 _____ (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pp. 140-152.
- _____ (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pp. 99-113.
- _____ (2000). 한국 농촌여성의 성역할태도, 부부간 지위수준 및 지위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pp. 53-72.
- 최혜경·노치영(1994). 기혼남녀의 부부간 문제해결행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pp. 262-271.
- 농촌생활연구소(2001). 2000년도 농촌생활과학 시험 연구보고서.
- 충남대 여성정책연구소(2000). 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실현방안.
- 한국여성개발원(1993). 농촌가족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
- 통계청 (2000). 한국의 사회지표.
- Chodoff, P(1964). Stress, defenses and coping behavior observationin parents of children with malignant diseas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
- Heavey, C.L., Layne, C., Christensen, A.(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6-27.
- Madden,M.E., and Bulman,J.R.(1981). Blame Control and Marital Satisfaction : Wives attributions for onflict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3. 1981.
- Pearlin, L.I. & Schooler,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 Paolucci, B.,Hall, N. A & Axinn, N.W.(1977). Family decision making an ecosystem approach. Johnwiley & Sons.
- Rice, F.P(1979). Marriage and Parenthood. Allyn and Bacon, Inc.
- Scanzoni, L., and J.Scanzoni.(1976). Men,Women, and Change : A Sociology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McGraw-Hill.
- Strauss, M.A.(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 scale(C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1, pp.75-88.